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李京源*

目次

I. 서론	2. 해원공사의 내용
II. 해원상생의 의미	(1) 신명해원
1. 해원의 의미	(2) 국가·민족해원
(1) 冤의 개념	(3) 관습제도
(2) 解冤의 개념	(4) 지기통일 및 금수해원
(3) 타종교에서의 해원의 의미와 방법	IV. 해원상생의 사상적 의의
2. 상생의 의미	1. 실천윤리적 대강령
III. 천지공사에 나타난 해원	2. 화평사상
1. 원의 발생 원인	3. 광구사상
	V. 결론

I. 서론

해원상생은 대순종지에 있어서 실천적인 대강령으로서 이야기 될 수 있다. 그것은 구천상제의 대순(大巡)하신 진리가 선천의 역사를 진단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면 그 사상의 요체는 바로 해원상생의 종지로 압축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셔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상제의 대 권능으로서 인류에게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맞이할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수 있게 해준다. 이 때 천지공사의 본령은 원(冤)으로 점철된 선천의 진멸지경의 역사를 해원을 위주로 하여 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원은 나아가 상생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신천지를 맞이함에 따라 그 진정한 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특히 천지공사에서 나타나는 해원의 공사내용을 위주로 하여 다루어보고 나아가 그 사상적 의의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해원상생의 의미

1. 해원(解冤)의 의미

(1) 冤의 개념

해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위해서 冤에 대한 개념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冤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怨, 恨 등을 살펴봐야 그 의미가 뚜렷해질 것이다.

먼저 冤에 대해 살펴보자. 『설문』에 의하면 “원은 구부리다는 뜻이다. 宀+冤로 이루어져 있다. 토끼가 宀 밑에 있어서 달릴수 없으므로 더욱 구부리고 꺾게 된다.”(屈也 從宀冤 冤在宀下不得走 益屈折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冤은 토끼가 갇혀 달릴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덮개가 계속 누르고 있으므로 몸은 굽히고 움추려 들게 된다. 그러므로 원은 ‘구부리다, 굽힌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달리고 싶는데 달릴 수 없고 자꾸 움츠려들기만 하는 안타까움을 뜻하게 된다. 나아가 달아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화를 입는 것 또는 죄없이 화를 입는 것에 대한 원망스럽고 억울한 뜻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볼 때 冤의 의미는 인간의 욕구나 목적, 소원이 외부에 의하여 이루지 못한 상황이나 죄가 없어도 화를 당한 경우 등에서 나타나는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을 말하고 있다.

한편 冤의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怨’은 원망(恨也), 원수(仇也), 분별의 뜻이 있다. 원망은 타인이나 다른 사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맺혀 일어나는 감정을 말하며, 원수는 특히 타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극에 달해서 복수나 응징까지도 생각함을 뜻하며, 분별은 외부에 대해 화가 나는 것으로 앞의 감정의 상태보다 그 정도가 미약하다. 다시말해서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대한 초기의 감정의 상태일때는 분별정도라면 원수는 특히 타인에 대해 맺힌 적대적인 감정이고 이것이 더욱 깊어지고 오래되어가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되며 또한 행동으로 옮길수도 없어 쌓여 억울한 상태가 원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怨은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 가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하나 유사한 개념으로서 恨은 ‘한할’(怨之極), ‘늪우침’,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있다. 한스럽다는 자신에 대한 쌓이고 맺힌 뿌이깊은 감정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자기로 인하여 남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되돌아 보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유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미안한 감정으로 앞의 것에 비해 정도가 훨씬 약하다. 즉 자신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이나 남에 대한 초기의 약한 감정이 유감이라면 늪우침은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상태를 말하며 나아가 자신의 내부에 오래도록 쌓이고 맺혀 한스럽다고 자학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 恨은 자기 자신이나 내부의 감정으로 억울해서 못 견디는 마음속의 응어리를 말하며 怨에 비해서 자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冤은 원통할, 억울할, 원한, 원수¹⁾를 나타낸다. 원통하다는 것은 주로 자신의 뜻이나 목적을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으로 인해서 이뤄지지 못해서 일어난 감정이고, 억울함은 죄가 없지만 누명으로 화를 당하여 맺힌 마음의 상태이다.

怨과 冤을 떼어 생각할 때 그 개념은 축소되나, 恨과 결합될 때 怨恨과 冤恨이 갖는 뜻은 훨씬 넓어지고 강해진다. 恨이라는 한자와 결합되어 낱말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로는 怨恨, 情恨, 痛恨, 悔恨 등이 있고, 怨과 결합되는 낱말들로는 怨聲, 怨心, 怨魂 등이, 그리고 冤과 결합되는 것으로는 冤痛,

1) 한한대사전, 장삼식저, 삼성문화사

冤恨, 冤罪, 冤鬼, 伸冤, 解冤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볼 때 冤에는 怨의 원망스럽고 원수같은 감정과 恨의 한스러운 감정 등을 다 포괄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보다 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怨과 恨에는 마음 心字가 들어있지만 冤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怨과 恨이 주로 인간의 감정이나 정감을 나타낸다면 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그 밖의 다른 존재들까지도 포함하여 그 뜻하고 쌓인 감정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恨과 怨은 인간의 감정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冤은 이렇게 자연계전체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사용됨을 『전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서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1장 37절)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로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 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 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행록 2장 15절)

첫 예문은 인세에서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진묵의 원이다. 진묵이 시해로써 천상의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려고 하였으나 친구인 유학자 김봉곡의 시기심으로 처참하게 죽었다. 이러한 그를 상제님께서 해원시켜 선경 건설에 참여케 한 것이다.

진묵의 원은 인세를 이롭게 하려는 큰 뜻을 세웠지만 타인에 의해서 무참히 좌절되어 발생했고,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禽獸들의 원이다.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자 각 종의 새들과 짐승들이 후천의 해원을 구하였다. 금수들은 항상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자체가 지닌 생명의 한계와 나아가 그 동물적 욕구를 자연속에서 채우기를 소망하는 것은 또하나의 冤으로 남아서 그것을 풀고자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과 금수들까지도 포함하여 그 맺힌 원한을 冤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恨이 자신에 대한 내적인 마음으로 자학적인데 반해, 怨과 冤은 주로 타자에 대한 것이거나 자기 밖에 있는 것에 대한 가학적 감정으로 한보다는 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冤은 怨과 恨의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怨이 원망, 원수 등의 뜻이고 恨은 '한할', '뉘우칠'의 뜻으로 쓰이는데, 冤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원통할, 억울한, 원한, 원수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怨과 恨이 주로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冤은 인간과 신명 그리고 금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연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원망의 감정이다.

(2) 해원의 개념

해원은 원을 푼다는 뜻이다. 사람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쌓인 원한, 관습 제도 등의 외부적인 상황때문에 일어나는 원, 뜻이나 소원들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후 맺힌 귀신과 신명들의 원, 금수들의 원한 등을 풀어버림을 말한다. 해원을 이루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척을 푸는 것이다. 척(慼)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怨恨)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好意)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다. 또한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여 불만과 불평을 갖게 하여 원한을 맺는 사회의 구조적인 제도 관습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수천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노정되어 왔고 그 결과 전쟁과 반란 등으로 인간들은 더욱 황폐화되어 왔다. 상제께서는 이것을 재민혁세의 응패의 술이라 하여 앞으로는 성인의 도가 펼쳐지도록 공사

보셨다. 그리고 인간이었을 때의 품었던 뜻이나 소원들을 이루지 못한 신명, 자손을 두지 못한 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후대에도 악평을 받는 신들과 금수들의 원 등을 푸는 것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해원의 의미는 인간계와 신명계의 모든 원과 한을 푼다는 大義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원에서의 冤은 愆이나 恨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진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3) 타종교에서의 해원의 의미와 방법- 굿, 천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에 대한 관찰은 종교적인 표상에 주목함으로써 쉽게 이뤄진다. 물론 종교의 본질이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만 가장 잘 파악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종교현상, 특히 종교체험은 나타난 표상을 통해서 비로소 전달 가능하게 된다. 종교체험이 형태적으로 나타난 표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인 표현(doctrine), 실천적인 표현(cult), 사회적인 표현(communion)이 바로 그것이다.³⁾ 이 중 실천적 표현은 종교체험이 실제로 잘 나타나며, 이른바 제의(祭儀)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 굿으로 대표되는 무속신앙(巫俗信仰)과 불교계에서 행해지는 천도제(薦度齊)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굿 또는 무의(巫儀)는 노래와 춤으로써 신령과 교제하며, 그들의 영능을 빌려서 제액초복(除厄招福)하려는 무속의 종교의식이다. 무속이란 대체로 초자연적인 영물과 인간이 교통하는 습속을 말한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자리잡고 인간의 고난을 신에게 의지하여 해결해주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사람이 무(巫)이고, 이러한 무들이 주도하는 신앙습속을 무속이라 정의할 수 있다.⁴⁾ 이러한 巫의 제의인 굿은 종교체험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굿은 그 목적이나 제신(祭神)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수 있지만, 제의로서의 굿에서 재수굿(또는 기복굿)과 오구굿이 가장 중심이 된다.

3) 정진홍, 「종교학 서설」(전망사, 1980), pp 31-42

4) 서대석, “무속과 민중신앙”,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pp 492-493

오구굿은 사령제(死靈祭)로서 지역에 따라 망묵이굿, 씻김굿, 진오귀굿 등의 이칭(異稱)이 있으나 망자(亡者)의 혼령을 위로하고 갈 길을 인도하는 의식이란 점은 공통이다.⁵⁾ 오구굿에서 특히 힘을 기울이는 것은 해원(解冤)이며, 좌절된 혼령을 갈 곳으로 인도하여 인간계의 밖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무에서 강신한 죽은자의 혼령은 못다한 말, 못 풀은 심회를 다 푸는 것이다. 이렇게 맺힌 것을 푸는 의식은 사실 생존한 사람의 응결된 한도 동시에 해소해 주는 구실을 담당한다. 억울하게 좌절된 소망인 맺힌 한을 풀어주는 의식은 무속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이며 이것을 화해의 정신이라 하겠다.

굿은 무를 통해서 죽은 원령과 산 원령이 만나서 푸는 행위이다. 억울하게 죽거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천도(薦度)란 천혼(薦魂), 천령(薦靈)이라고도 하며, 죽은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보살께祭를 올려 영혼들로 하여금 정토나 천계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법식을 말한다.⁶⁾

佛敎에서는 冤鬼니 冤魂이니 冤結이니 하여 現世에서 어떤 相對者와 冤業을 짓고 남의 손에 죽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거나 惡刑을 받고 죽거나 혹은 水·火·盜賊·墜落死·産難死·壓死 등 五種橫死와 九種橫死 등의 靈識은 이른바 舍冤·抱恨의 幽結로써 바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冥界·陰界에 循環하면서 그 依託할 곳을 찾지 못하면 結冤의 相對者에 侵嘖하여 疾痛·橫厄 등으로 그 상대를 괴롭힌다는 것이 密敎經典에 많이 쓰여 있다.

佛敎에서는 死後의 魂識을 천도하는데 힘쓰며 또는 陸·空間에 無數한 冤鬼가 떠돌고 있다하였다. 中國 梁武帝는 처음 水陸大齋를 베풀어서 그 冤鬼를 천도하였다. 그 뒤에 여러 절에서 水陸齋를 베풀어 주는 일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新羅時代부터 八關會라는 法會를 베풀어 모든 土地·龍神과 水陸雜鬼에 施食하고 또는 戰沒將兵을 薦度하였다. 高麗王朝 이후에는 八關·燃燈會·水陸無遮會 등을 베풀어 神人의 解冤釋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 遺風으로 朝鮮 李太祖도 王朝交替時에 非命으로 죽어간 王代一門과

5) 서대석, “무속과 민중신앙”, 앞의 책, p 521

6) 불교사전, 운허용 엮음, 선학원, 1982년, p 842

高麗 忠臣의 冤魂을 慰安 薦度하기 위하여 三角山 津寬寺에다 水陸社를 設置하고 春秋로 高麗王朝 및 殉國忠臣을 爲하여 解冤慰魂齋를 지내왔던 것이다.⁷⁾

이처럼 불교에서도 解冤을 위하여 水陸齋나 八關會를 베풀어 지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제의식(齊儀式)으로 조상의 혼령이신 영가를 부처님전에 모시고 부처를 찬탄하고, 영가의 업장을 소멸케 한 다음, 시식을 하도록하여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며, 후손들의 번창까지도 발원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순국충신과 전멸장병 그리고 地神 및 雜神들의 원혼을 달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다.

굿은 무당을 통해 죽은 혼령의 맺힌 한을 풀어 그 영혼을 신명계로 보내고 살아있는 사람의 응결된 한도 같이 풀어 준다. 그래서 인간과 혼령의 화해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불교의 천도제는 부처의 감화로 조상이나 부모의 이생에서의 못다한 원한을 풀고 왕생극락으로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굿과 천도제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을 풀기위해 진행되는 제례, 의식이며 기복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반면에 대순사상에서 논의되는 해원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명, 신명과 신명 등 인간계와 신명계를 포함한 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원한을 푸는 대공사(大公事)이다. 해원은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모든 제도와 관습 등에서 자유롭게 하며, 국가, 민족간의 맺힌 부분들을 해소하고 인간, 자연, 신명 등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원리로 제시된 것이다.

2. 상생(相生)의 의미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화합하고 협조하여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는 개념으로 상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극

7) 이종익, 해원상생사상의 사회적측면과 종교적측면, p 99, 증산사상연구 제5집, 1979년, 증산사상연구회

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아 늘 충돌함을 일컫는 말이거나, 두 사물(현상)이 서로 대립되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해롭게하여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

상생과 상극은 본래 중국의 음양오행설에서 유래하였다. 상생관계는 오행설에서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이고, 상극관계는 수극화(水剋火), 목극토(木剋土), 화극금(火剋金), 토극수(土剋水), 금극목(金剋木) 등을 말한다.

대순사상에서 상생은 음양오행에서 유래된 상생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신명, 자연과 신명 등 모든 우주의 구성체가 원한을 풀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서로를 위하여서 이해하고 아끼면서 용서하는 자세로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의 상생은 천 지 인 삼계가 원한을 풀어 모두 잘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오행의 다섯가지 요소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 받고 생하는 관계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생(共生)이란 개념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사전에서는 공생은 종류가 다른 두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 해를 주지 않고 양쪽 또는 한 쪽이 이익을 받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일을 말하고, 공존(共存)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생활체나 활동체가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도우며 살아감을 뜻한다. 공생은 상호간에 감정이나 손익관계 등이 풀리지 않았으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대립, 마찰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써 상극의 원리가 존재하는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상생은 오로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며 한 몸의 관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아껴주는 근원적 일체의 감정을 담는다. 따라서 상대가 잘 되어야만 내가 잘 될 수 있으므로 서로를 잘 되게 하기위해 힘쓰는 관계가 바로 상생이다.

현 세계는 상극의 지배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상도를 잃고 재화가 발생하여 진멸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상제께서 강세하여 상생의 도로 신명과 창생을 건져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공사를 보시게 된 것이다. 이를 전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공사 1장 3절)

상극으로 인해서 처한 삼계의 위기를 상생의 도로써 신명계와 인간계 모두가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천지에 가득한 원한을 근본적으로 풀어버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맺힌 것을 풀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상생은 반목과 쟁투, 억압과 차별이 없고, 인간과 신명의 내·외적인 모순과 불평등의 상극의 원리에서 벗어나 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류에 강륜(綱倫)이 바로 잡혀 사람은 원울과 탐욕이 없어 서로 돕고 살아가고 신명도 착란이 없어져 서로 상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인간 세계가 탐욕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모략들과 차별 대우에서 생긴 원한과 불평등이 상극의 원인이라고 보셨다. 이를 위해 서로가 화해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해원과 상생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해원은 맺힌 원을 푼다는 의미로 인간의 감정이나 소원 등으로 인한 내재적인 원한과 제도, 관습 등의 외부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한들을 푸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신명, 신명과 신명, 자연과 인간 등에서 기인된 모든 척과 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상생은 상극의 원리로 일어난 인간계와 신명계의 근본적인 원한을 풀어버리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상극을 상통케하여 모든 존재들이 서로 살아감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원이 되려면 상생이 되어야 하고 상생이 이룩되려면 역시 해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원없이 상생이 없고 상생없는 해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구천상제님께서서는 광구천하. 광제창생을 하시려고 인세에 오셨다. 인류가 忠孝烈이 없는 無道한 大病에 빠져있음을 진단하고 천지를 구하고 신명과 창생을 구하려고 해원상생의 대도를 펴신 것이다. 그래서 상극의 도수를 풀기위하여 9년간의 천지공사를 해원을 위주로 하여 이룩하셨다. 특히 신명해원을 위주로 공사를 행하시고 제도·관습 등 인간을 억압하는 반상과 척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 등을 없애는 공사를 집행하셨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실제적인 구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천지공사에 나타난 해원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천지공사에 나타난 해원

1. 원의 발생 원인

상제님께서서는 인류가 진멸지경에 처한 이유를 파악하셨는데 이는 원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예시 8절)

선천의 현실이 상극에 지배됨에 따라 인간과 사물이 원한이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 상극의 원리는 대립과 쟁투, 모략과 불평등을 낳게 되고, 이것이 시대의 추이를 더하게 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에 가득차 천지가 멸망하게 되었다.

원의 시작을 알아야 원을 푸는 방법을 알고 그래야만 해원공사를 할 수 있다. 전경에는 상제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상제께서 칠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공사 3장 4절)

여기에서 요의 아들 단주가 원의 역사의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주는 그 아버지 요가 천하를 순에게 물려주어 제위를 계승하지 못하자 원을 품게 되었고 순과 두 왕비를 죽게 하였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퍼져서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천이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 지 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고 참혹한 재화가 발생하여 이 세계가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해원공사를 행하시게 되며 천지공사를 해원을 위주로 하신 것이다.

2. 해원공사의 내용

해원공사의 내용은 천 지 인 삼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명계 해원공사와 인간계해원공사로 나누고, 인간계에서는 국가해원, 관습, 제도의 혁파를 통한 해원, 그리고 땅과 금수들의 해원공사 등으로 살펴본다.

(1) 신명해원

상제님께서서는 ‘지금은 신명해원시대’⁸⁾라고 말씀하시고 삼계공사를 착수하시면서 신명의 해원공사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공사 1장 3절)

이 구절은 천지공사의 의의와 공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인사가 저절로 이룩된다고 하였다.

먼저 명부의 착란으로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8) 전경, 교운 1장 20절

뜯어고쳐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만들었다.9)

상제님께서서는 신명해원공사를 보시게 된 역사적 인물로서는 신농씨, 단주, 진묵으로부터 전명숙, 최수운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원의 역사의 시작인 단주의 해원공사를 보았다. 단주(丹朱)의 원을 풀어야 그로부터 수천년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되고, 원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야 인류에 평화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주의 해원도수는 회문산 오선위기혈에 붙여 조선의 국운을 돌리는 데서부터 풀려진다.10)

둘째, 신농씨와 강태공에 대한 공사이다.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 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자가 있되 그 공덕을 양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월 강태공 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고 하셨도다. (예시 22절)

신농씨는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쳐 수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혜택을 입었으며, 강태공은 부국강병의 술법을 전하여 대업을 이룬자가 많으나 역시 보답이 없었다. 그래서 해원의 시대에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였다.

셋째, 진시황의 해원공사이다.

[이것이 대보책(대보책)이며 마패(마패)이니라.] 또 상제께서 한 권의 책명을 [의약복서 종수지문(의약복서종수지문)]이라 쓰시고 [진시황(진시황)의 해원도수이니라] 하시고 한 권을 신원일의 집 뒷 산에 묻고 또 한 권을 황웅종의 집 뒤에 묻으셨도다(공사 3장17절)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국가로 만든 최초의 황제이다. 당시 난세의 천하를 통일하고 제도, 법률 등을 정비하였고 아방궁을 지어 왕실의 위엄을 떨쳤다.

9) 전경, 공사 1장 5. 7절, 예시 10절

10) 전경, 공사 2장 3절

개인적으로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어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의술 발전과 도가의 장생술 연구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수많은 유가서적과 유학자를 죽이는 등 사상탄압을 하였다. 이때 남은 서적은 의약과 점치는 책 그리고 나무를 심는 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보심에 후천선경을 건설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진시황의 꿈을 전 인류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진묵의 해원이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개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2장 37절)

진묵은 유 불 선도에 해박하였고 천상의 묘법을 인세에 베풀려고 하였으나 김봉곡에게 죽은 후에 원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개발에 힘썼다. 이러한 그를 상제님께서 해원시켜 후천선경건설에 참여케 하였으며 불도의 종장¹¹⁾으로 세우셨다.

비슷한 시기의 이마두는 동양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고 신명들을 왕래케하였으며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다.¹²⁾ 진묵의 경우처럼 해원시킨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마두의 행적을 밝혀주시고 서도의 종장을 맡게 하심은 아마도 그 뜻을 높이 여겨 후천선경건설에 동참시켜 그를 해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 사이에 나타난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고¹³⁾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신¹⁴⁾ 것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11) 전경, 교운 1장 65절

12) 전경, 교운 1장 9절

13) 전경, 예시 13절

14) 전경, 교법 3장 24절

다섯째, 전명숙과 최수운 그리고 동학신명의 해원이다.

상제께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워 전명숙과 최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 「이 곳에서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司命旗)가 없어서 포한
 (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서 해원케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
 명기 한 폭을 지어 ... 최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공사 3장 2절)

최수운은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은 사람으로 경신년에 득도하여
 侍天呪를 얻었으며 동학의 창시자이다. 동학의 輔國安民은 후천일을 내세운
 것이다. 상제님께서 그를 해원시켜 각각 선도의 종장과 일본의 명부로 삼으
 셧다.

전명숙은 동학혁명을 주도한 사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뜻을 품었
 지만 이루지 못하고 한이 맺혔다. 그는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
 하게 만들어 주는 남 잘 되게 하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조선의 명부
 가 되었다.¹⁵⁾ 또한 백의 한사로 일어나 천하를 움직인 만고의 명장이자,¹⁶⁾
 남조선 뱃길에서 도사공¹⁷⁾이다.

동학은 본래 보국안민을 주장하였지만 마음은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수만
 명이 죽게 되어 원한이 창천하였다. 이러한 동학 신명을 상제께서는 차경석
 에게 붙여 해원시켰다.¹⁸⁾

여섯째는 김경훈의 해원이다.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상제께서三月 어느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 해
 원시대니라. ... 충남(忠南) 비인(庇仁) 사람 김 경훈(金京訥)은 五十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으며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을주를 쓰리라」 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¹⁹⁾

위에서 김경훈은 역사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오직 상제님

15) 전경, 교법 1장 2절
 16) 전경, 공사 1장 34절
 17) 전경, 예시 50절
 18) 전경, 공사 2장 9절
 19) 전경, 교운 1장 20절

께서 그가 50년 공부로 태을주를 받은 것을 밝혀주었다. 그는 태을주를 신명에게 얻을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다고 한다. 태을주는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으로 오만년 동안 각 동리와 학교에서 외우는 주문이다.²⁰⁾ 이처럼 태을주는 사람을 살리고 후천에서도 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문이기에 이것을 받은 김경흔을 해원하게끔 해 주셨던 것이다.

일곱째는 중천신과 만고 역신의 해원이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중천신은 후사를 못 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는 말씀을 상제로부터 들었도다.²¹⁾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밍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육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²²⁾

중천신은 후사를 못뒤 의지할 데가 없는 신명으로 복을 주어 원한을 풀어주셨다. 만고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적놈이라고 육설을 들어 천지에 원한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내어 해원시켜 주었다.

여덟째, 최익현, 박영효, 민영환²³⁾의 해원이다.

상제께서 최익현과 박영효(박영효)의 원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만세 만만세 일월 최익현 천포 천포 천천포 만포 만포 만만포 창생 박영효」라 쓰시고 불사르셨도다.(공사 2장 22절)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

20) 전경, 교운 1장 60절

21) 전경, 공사 1장 29절

22) 전경, 교법 3장 6절

23) 전경, 예시 37절

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 낙안(林樂安)은 죽고 최 면암(崔勉庵)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20절)

최익현, 박영효, 민영환은 조선 말기의 우국 충신지사이다. 박영효는 당시의 쇄국정책으로 세계정세에서 고립되어가는 조선의 개화를 추진한 인물이고 민영환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극구 반대하였다. 최익현은 의병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으로 대마도에 끌려가서도 지조를 지킨 사람이다. 여기서 그의 일심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이 상제님의 신명해원공사의 내용이다. 여기에 나타난 신명은 주로 인간으로 있을 때 인류나 국가와 백성을 위해 커다란 뜻을 세웠던 사람으로 그것이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명해원공사는 단주의 해원도수로부터 원의 마디를 풀게하여 인류의 평화를 찾게하였다. 농사, 의약, 부국강병의 술법은 현재까지도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이다. 또한 문화의 정수를 통일 하여 후천 문명의 기초를 마련한 것과 보국안민 즉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일은 그 뜻으로 보아 반드시 해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밖에 한이 가장 맺힌 중천신과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후천의 역도에 걸리지 않도록 공사를 보셨다.

(2) 국가.민족해원

전경에는 조선, 중국, 일본에 대한 해원공사가 있다.

첫째, 조선의 국운을 회복하는 공사이다.

또 상제께서 장근으로 하여금 식혜 한동이를 빗게 하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24)

상제님께서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조선에 강세하신 것은 참화 중에 묻힌 무

24) 전경, 공사 2장 3절

명의 약소민족을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는데 뜻이 있다.²⁵⁾ 또한 조선처럼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²⁶⁾ 조선은 약소민족으로 수 많은 원한이 쌓여있는 나라이지만 신명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접하였기에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그래서 상제님께서서는 단주의 해원 도수를 오선위기혈에 붙여 조선의 국운을 돌린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원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을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오시는 공사를 보셨다.²⁷⁾

둘째, 일본의 원을 풀어주셨다.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²⁸⁾

일본은 임진란에서 세 가지의 한을 맺었다.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 점, 인명이 많이 살해된 점, 모 심는 법을 가르친 것이 그것이다.²⁹⁾ 그래서 해원시대를 맞아 삼한을 풀어주었고 일시천하통일지기와 일월대명지기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한 것이다.

셋째는 중국의 해원공사이다.

상제께서 원일과 덕겸에게 [너희 두 사람이 덕겸의 작은 방에서 이레를 한 도수로 사목 문밖에 나오지말고 중국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희의 처결로써 중국 일을 결정하리라] ... 상제께서 [너는 어떠하뇨] 하고 물으시는 말씀에 별안간 생각이 떠올라 여쭙는지라. [세계에 비할 수 없는 물중지대(物衆地大)와 예락문물(禮樂文物)의 대중화(大中華)의 산하(山河)와 백성이 이적(夷狄...오랑캐)의 칭호를 받는 청(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이까.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옳으리라 생각하나이다.]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25) 전경, 권지 1장 11절

26) 전경, 교법 3장 22절

27) 전경, 예시 29절

28) 전경, 공사 2장 4절

29) 전경, 예시 74절

[내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써 중국이 회복하리라]하시
나라.³⁰⁾

중국은 천하의 대국으로 청에 정복되어 원한을 갖고 있었다. 이 해원공사로
중국이 회복하게 되었다. 중국이 편안해야 조선도 부흥하게 되며, 보은신이
조선에 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게된다.

(3) 제도, 관습으로부터의 해원

인간이 원한을 맺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중 하나가 제도와 관습이다.
제도와 관습에서 차별과 억압, 대립과 쟁투 및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사람들
의 원한이 창천하게 된다. 19세기는 세계적으로 민족, 국가간, 계급, 계층간,
남녀간의 모순들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은 반상과 적서의 차
별 그리고 남존여비의 제도와 관습이 격화되고 있었다.

첫째는 반상의 구별과 적서의 차등이다. 반상은 양반(兩班)과 상인(常人)을
이르는 말인데 상인은 글공부도 못하게 하였고, 양반들 앞에서 할말도 못하
며 복종하여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법제도였다. 또한 적서란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이르는 말인데 서자는 아무리 재질이 영특하여도 글을 가르치
지 않았고, 조상의 제사에도 문밖 뜰에서 참례케 하였다.³¹⁾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
의 뼈를 짚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다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
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
라.³²⁾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 이 시골에서
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³³⁾

30) 전경, 공사 3장 18절

31) 대순성적도해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p 13

32) 전경, 교법 1장 9절

33) 전경, 교법 1장 10절

반상과 적서의 차별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상극을 조장케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당대에 동학농민혁명으로 대표되는 민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을 철폐시켜 원한을 해소시키신 것이다.

둘째는 남존여비의 관습이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³⁴⁾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³⁵⁾

당시에 내려오던 남존여비의 관습은 여자들에게 억압과 불평등을 강요하여 그 원한이 처절할 정도였다. 상극의 원리는 음양관계를 억음존양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세상에는 남존여비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쳐 후천의 정음정양으로 음양도수를 조정하는 공사를 행하였고 '대장부 대장부'(大丈夫 大仗婦)라 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셨다.³⁶⁾

(4) 지기의 통일과 금수의 해원

첫째, 지기의 통일이다.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³⁷⁾

상극의 원리는 지기에 영향을 끼쳐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여 신명들이 지역 간 왕래가 이뤄지지 않게 되었으며 각 지역, 민족마다 저마다 다른 사상과

34) 전경, 공사 1장 32절

35) 전경, 교법 1장 68절

36) 전경, 공사 2장 16,17절 참조

37) 전경, 공사 3장 5절

문화가 일어나서 반목쟁투하게 되어 인류에게 커다란 시비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기의 통일로써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도수를 조정한 것이다. 이 밖에 정기를 뽑는 공사(공사 3장6절), 땅을 하늘과 같이 높이게 하는(교법 1장63절) 등 땅의 해원공사를 보았다.

둘째, 금수의 해원이다.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시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후천의 해원을 구하여³⁸⁾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것은 인간과 신명뿐만 아니라 금수들의 해원공사를 보신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명계의 명부공사, 단주, 진묵, 전명숙과 최수운 등의 해원공사와 인간계의 국가와 민족, 제도와 관습, 그리고 지기와 금수의 해원공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극의 원리로 지배받던 인간계와 신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원공사를 집행하였고 그래서 천 지 인 삼계가 상통하고 상생하게 된 것이다.

IV. 해원상생의 사상적 의의

1. 실천윤리적 대강령

해원공사는 인간계와 신명계에 쌓인 겁액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한 공사이다. 이로써 삼계가 상통,상생하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상제님께서 천지를 상생케하는 기초작업을 하신 것이다. 다시말해서 인간과 신명이 모두 살수있는 내.외적인 환경을 천지공사로서 조성하였고 이로써 인간은 해원상생의 대도를 실천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은 지금까지 성현들의 단순한 가르침이나 선언(宣言)적인 차원을 넘어 이 세계가 진정으로 상생하도록 구체적인 작업의 천지공사를 보셨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해원상생의 실천이 관건이라 하겠다. 즉 해원상생의 진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38) 전경, 행록 2장 15절

달려있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실천윤리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이 되어야 대순진리의 목적인 지상천국, 도통진경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지상천국 또는 지상선경은 사람들이 해원상생을 실천할때 가능한 일이다. 인간 상호간, 국가·민족간, 계급·계층간, 인종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명들이 모두 원한을 풀고 상생해야 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원상생은 현대의 실천윤리의 대강령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원상생의 사상은 일견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과 비교되기도 한다. 유교가 인의 실천을 통해 인격완성과 대동세계를 추구하였고, 불교는 자비로 곁액을 벗고 성불하여 극락세계를 지향했으며, 기독교 역시 사랑의 실천으로 지상천국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단 해원상생은 상제의 천지공사로 이루어진 후천선경의 새로운 생활법으로 제시되어 진다는 점에서 선천의 종교적 윤리와는 차별화되어지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인세에 강세하신 이유는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 무도한 세계에 처하였기 때문이다. 무도하게 된 원인은 삼강오륜이 끊어져 세상에 충, 효, 열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천하가 큰병에 걸렸다고 보았다.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大仁大義無病³⁹⁾

윗 구절은 현하의 세상을 진단한 글이다. 천하가 병든 원인은 無道에서 나왔으며 그 치유 방법은 도를 얻어 安心安身과 大仁大義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심안신은 해원상생이 실천되어야 가능하다. 사람간에 원한이 없고 자기의 자리에서 도리를 다하고 이해하고 남을 존중해야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삼강오륜의 도덕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삼강오륜이 지켜져야 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밝힌 인간의 강륜이

39) 전경, 행록 5장 38절

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 도 지켜져야 할 도덕인 것이다. 삼강오륜이 끊어져 천하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과 도리를 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여 서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도덕이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히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중 하나가 다원화이다. 다양한 민족과 국가, 계층 계급, 종교와 사상, 문화와 과학 등이 공존 공생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간에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다분하다. 또한 이 시대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발생한 정신의 황폐화, 개인주의, 인간멸시와 소외, 생명경시풍조 등의 어두운 그림자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세계평화, 인류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해원상생의 실천을 더욱 요구한다. 해원상생은 어느 하나의 편견과 독주를 용납하지 않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되고 인간의 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화와 화해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화평사상

해원상생의 근본적인 이념은 화평이다. 화평은 세계평화, 사회화합, 가정화목이 전 인류에 실현된 상황이다. 이 점은 삼재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이룰려고 하는 바이다.

너희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⁴⁰⁾

선천에서는 상극원리로 천지에 원한이 가득 쌓였다. 원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복과 응징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보복과 응징이 있는 사회에서는 상극투쟁이 만연하여 평화가 존재하기가 매우 힘들다. 신명과 인간의 불안과 소원을 들어주고 위로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고자 할 때, 자연과 인간, 신명과 인간상호간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은의와 양보가 따르게 된다. 따

40) 전경, 교법 1장 53절

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상극투쟁은 없어지고 서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상부상조의 평화로운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평화가 이룩될려면 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성을 사게되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싸움이나 반목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평화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전쟁, 분열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화가 자리잡으려면 먼저 인간상호간의 해원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상생이 되어야 한다.

상생의 실천은 남을 잘 되게 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남을 잘 되게 하려면 남에 대한 나의 감정을 풀어야 하고 그래야만 남을 위해 노력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과 힘을 합칠수 있다. 남과의 협동 상부상조가 되어야 상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잘 되게 하므로써 그 보답을 받아 결국 자기 자신도 잘 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이는 남에게 아픔과 상처, 나아가 원한을 맺게 되어 결국 자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 오게 마련이다. 즉 나만을 위한 것은 나와 타인에게 해를 끼칠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남을 잘 되게 하는 상생의 이념은 남과 나를 모두 잘 되게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대될 때 집단, 국가간의 인간계에서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명, 신명과 자연이 모두 사는 상생의 세계와 상생의 도가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로이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문명은 자연을 같이 살아가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의 파괴로 지구 자체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으며 그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환경의 파괴는 자연재해의 증가와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역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연과 그 속의 동식물과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해원상생은 한국사에서 뿌리 깊고 오랜 저항의 이념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여는 화해와 창조 의 이념에 그 종교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저항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어떤 사회를 적극적으로 창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도 능동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저항을 받는 세력이 사라지고 또 다시 저항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의식이고 사회정의라고 여기는 발상이 끊이지 않고 재생된다. 물론 한 사회에 반드시 비판정신은 필요하고 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경직화되고 화석화된 형식과 도식 아래서 교조화된 비판의식은 그 스스로 새롭게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사고의 체질을 십분 임태한다. 그러나 상제님의 사상의 의미는 그런 단가적 발상을 한국최근세사에서 최초로 거부하고 초극하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저항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투쟁, 전쟁과 파괴를 낳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상제님의 해원상생의 이념은 저항을 화해, 그리고 해원을 통한 상생의 원리를 제시한 창조적인 종교사상이다. 원을 풀어 같이 잘 살아야 하는 해원상생의 사상은 현대의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이념으로 충분할 것이다. 대순사상의 지향점이 해원상생을 통한 전 인류의 화평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이다. 전세계 인류의 화평이 세계개혁이요 지상낙원이요 인간개조이며 지상신선이다. 인류가 무편무사하고 정직과 진실로서 상호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의 도덕심이 생활화된다면 이것이 화평이며 해원상생이다.

이처럼 해원상생은 화평사상이다. 선천의 상극에 의한 원한의 발생으로 인류는 진멸지경에 처해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정신의 파괴, 인명경시, 자연정복 등으로 이어져 그 위험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나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는 척을 짓게 마련이고 원한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사상이 해원상생이다. 모든 원한을 풀고 같이 잘 살자는 노력이 실현될 때 인간, 자연, 신명 등이 상생이 되어 전 인류는 화평을 이룰 것이다.

3. 광구사상(匡救思想)

광구(匡救)는 널리 구하다는 뜻이다. 광구천하(匡救天下)라 하여 천하를 널리 구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본래 상제님께서 인세에 강세하시어 진멸지경에 빠진 세계를 널리 살피어 건진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뿐만아니라 자연과 신명계까지도 다 함께 구제한다는 大義를 담고있다.

상제께서 광구 천하하심에 있어서 판안에 범으로써가 아니라 판밖에서 새로운 범으로써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 하셨도다.⁴¹⁾

상제님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여 천하를 널리 구하려는 뜻을 두고 삼계공사를 하시게 된 것이다. 천지공사는 하늘과 땅, 인간을 뜯어고쳐 새롭게 지어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 쓰는 것과 새로운 것을 짓는 의미를 다같이 포함한다. 그래서 천 지 인 삼계를 다 같이 살 수 있게 천지공사의 대역사를 하신 것이다.

상제님께서서는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겁에 빠진 창생을 널리 건지려고 오셨으며, 또한 그러기 위해 상극을 상생의 원리를 바꾸고 선천세계의 상극의 원인인 원한을 푸는 해원공사를 보셨다. 이처럼 모든 공사가 천하를 널리 살리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해원상생은 광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현들의 말씀이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면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은 전 우주를 통괄하여 살리는 사상이다. 이는 특히 광구천하라는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광구천하하기 위해서 강세하셨고 그래서 해원상생의 진리를 펴신 것이다. 다시말해서 광구천하가 상제님의 대의라면 그 대의를 구체화하는 실천방법이 해원상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은 광구사상이라고 한다.

앞 장에서 기술한 신명계와 인간계에 대한 해원공사를 보신 것도 우주구성요소간이 서로 원을 풀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조화하신 것이다. 인간과 신명, 신명과 자연, 자연과 인간 등이 막힘이 없이 통하여 살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신명들의 해원공사를 위주로 하여 인세의 낡은 제도 관습들을 없애는 공사 그리고 자연계의 지기의 통일과 금수들을 해원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공사들은 결국 광구천하, 광제창생의 大願을 담고 있고 그 방법이 해원상생의 원리로 행하셨다. 광제창생(廣濟蒼生)은 광구천하와 비슷한 의미로 세상 사람을 널리 구제한다는 뜻이다.

또한 대순이란 어휘에서도 상제님께서 인세에 강세하여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어 광구천하하시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이 천하를 크게 돌며 살핀다는 의미로 막힌 것을 뚫고 서로 상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41) 전경, 예시 4절

다. 그러므로 대순에는 해원과 상생의 뜻이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好生의 덕이 많으시었다.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고 위기에서 구하시곤 하셨다. 당시 많은 백성들을 제생시켜주셨고, 종도들에게 호생의 덕을 강조 하셨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災民革世(재민혁세)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 …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⁴²⁾ 이처럼 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인의 도인 제생의세를 본 받아 호생의 덕을 쌓을 것을 말씀하였다. 호생의 덕이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존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덕을 말한다. 이것은 현대의 인명경시풍조와 생명의 존엄함을 모르는 인류에게 커다란 교훈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은 천지를 구하고 살리는 광구. 광제사상이다. 이는 상제님의 천하대순과 인세에서의 수많은 공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선천이 진멸하게된 원인인 상극과 그로 인한 원한의 발생으로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셨고, 그래서 전 우주가 살 수 있도록 해원상생의 진리를 펴시고 그에 따른 대공사를 하셨다. 해원상생은 인간계와 신명계의 모든 원한을 풀어 상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이다. 이는 인류를 구할수 있는 진리인 것이다.

V. 결론

이상에서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에 나타난 해원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시어 행한 대역사로서의 천지공사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지만 그 대체적인 본령은 항상 해원을 위주로 하신 것이며 해원을 이루므로써 다시는 원울과 번뇌가 없는 화평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그리하여 해원의 범위는 인간의 역사뿐만

42) 전경, 교운 1장 16절

아니라 나아가 신명계와 천지 그리고 금수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적인 영역 속에서 행해졌으며 새로운 세계의 구성은 그렇게 해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는 원이 맺히지 않게끔하는 상생의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종지는 바로 그러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원상생은 오늘날 인류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생활화해야만 하는 대강령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